

비즈 프리즘 |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 임박

혁신 없는 '키움'·자본 취약 '토스'...운명은?

두 컨소시엄 모두 인가 불투명
금융위, 26일경 예비인가 발표

제3인터넷전문은행 지정을 위한 예비인가 발표가 이르면 3일 후인 26일로 예정되면서 새 인터넷전문은행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가 신청서를 낸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등 2곳이다.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을 표방한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과 모기업 다우기술을 주축으로 KEB하나은행, SK그룹의 SK텔레콤, SK증권, 11번가,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롯데멤버스 등 28개 사로 구성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 등 틈새고객에 맞춘 글로벌 챗봇 저뱅크를 내세우고 있다. 간편송금 앱 토스운영체제 비바리퍼블리카가 컨소시엄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로 압축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가 이르면 26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진은 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 동아일보DB

이끌고 한화투자증권, 굿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빙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랩(무신사) 등 8개사가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2곳까지 인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두 컨소시엄 모두가 웃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먼저 출

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최근 대주주격성 심사로 애를 먹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가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도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평가받는 쪽은 토스뱅크다. 신청 직전에 신한금융을 비롯해 현대해상, 카페24, 작량 등 주요 참여사가 빠진데다, 지난해 영업손실 444억7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수 년째 적자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반면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하나금융, SK그룹, 롯데그룹 등 튼튼한 자본력의 주주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키움뱅크 컨소시엄도 약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금융산업의 혁신성이 토스뱅크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결국 기존의 키움증권에 은행을 추가하는 모양새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26일 발표하는 예비인가 결과에 금융감독원이 24일부터 2박3일 간 진행되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합속심사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22일

코스피지수	2064.86	▲	+3.61
코스닥지수	706.93	▲	+2.95
日 닛케이 지수	2만1272.45	▲	+10.92
中 상하이 종합	2891.71	▼	-14.2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68	▲	+0.01
환율 (원·달러)	1193.00	▼	-2.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8854.37	▼	-181.27

대한항공, 200대째 보잉 항공기 도입

대한항공은 14일 미국 보잉사로부터 B777-300ER 항공기 1대를 신규 도입했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누적 200대째 보잉사 항공기다. B777-300ER 기종으로는 25대째로 대한항공이 보유한 기종 중 가장 많다. 대한항공은 1971년 B707-3B5C를 시작으로 48년간 200대의 보잉 항공기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B777-300ER은 200대째를 상징하는 "200th AIRCRAFT" 문구를 기체 앞부분에 래핑하고 인천-후쿠오카 노선에 투입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카카오 i 번역 가능 언어 19개로 확장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서비스 '카카오 i 번역'의 가능 언어를 19개로 확장했다. 그동안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번역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포르투갈어, 아랍어, 러시아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방글라데시어, 말레이시아어, 힌디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터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13개 언어를 추가했다. 카카오는 문체 설정과 단어 단위 하이라이팅(형광펜 표시), 어학사전 연동 등 다양한 학습 보조 기능도 추가했다. 김명근 기자

이통사들, ICT로 '골든타임' 확보한다

LGU+, 긴급차량 우선신호 실험
SKT, 빅데이터로 범죄현장 대응

이동통신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서울시, 이마트레팍과 자동중요제어 방식 교통우선신호제어 소프트웨어 '긴급차량 우선신호(EVP)'를 실증했다. 긴급차량의 교차로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해 녹색신호 조절로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신호 제어 기술이다.

서울시와 LG유플러스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과 1.78km 구간에서 실증을 마쳤다. EVP 적용 소방차는 일반도로로 상향 보다 평균속도가 70% 빨라지고 평균 이동시간은 41% 줄었다. LG유플러스와 서울시는 앞으로 운영지역과 적용 긴급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현장에



LG유플러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험

빠르게 대응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폭력, 시비, 주취자, 교통사고 등에 대한 112 신고 정보를 신고유형 및 출동시간·발생장소 등으로 분류하고, 순찰차의 이동경로와 배치 위치 등을 분석해 상황별로 효율적 대처를 돕는다. 유동인구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시내 각 지역의 시간별·연령별·성별 인구 분포를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앞으로 경찰청 112 순찰노선 개발 사업과 연계한 전국단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8월 펫서울 2019... "반려동물과 함께 오세요"

코엑스 내 최초 반려동물 입장 허용
펫마켓 매뉴얼 배포...목줄 등 대어

'펫서울(PET Seoul) 2019'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허용된다. 주관사인 팀마이스의 박준 대표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펫서울 2019'는 코엑스 전시장 내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성사된 의미있는 행사로 치러진다"고 전했다.

팀마이스는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행사기간 '펫서울 2019' 펫마켓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펫 투게더'(Pet-together) 펫마켓 캠페인을 실시한다.

펫마켓 매뉴얼에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일반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반려동물 동반 기준이 제시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행동전문가 그룹인 HAB위원회(위원장 위혜진)의 자문으로, 전용 케이지 이용과 이동방법, 배변물의 처리, 법령에 명



지난해 펫서울 2018 전시장

시된 맹견 출입제한 안내, 예방접종 및 인식표 착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람회 안내데스크에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이동장, 목줄을 대여하고, 배변봉투를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펫서울 2019'는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팜웨이인터내셔널이 공동 주최하고, 팀마이스가 주관한다. 배우 겸 방송인 안혜경이 홍보대사를 맡았고, 아시아 최대 국제수의박람회인 카하 엑스포(KAH A Expo)가 동시 개최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에공회' 통해 멘토링 시스템 지원

공인중개사 실무 어려움, '동문회'에서 해결하세요

중,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드는 20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취업 이후에도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릴 바에는 공인중개사 개업이 낫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공인중개사 개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잇따른 부동산 관련 이슈들로 중개 시장 사정이 예년만큼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 간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를 연령별로 취합한 결과 20대 여성 공인중개사의 숫자는 2013년 408명에서 2018년 57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20대 남성과 30대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두 감소한 상황에서 20대 여성 개업 공인중개사만 늘어나 더욱 주목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중개업 특성상 여성이 사람을 대하는 영업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며 "최근 공인중개사 산업에도 AI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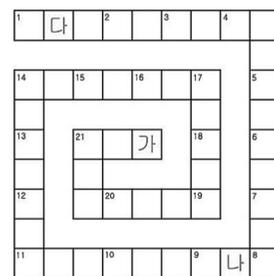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변화에 능동한 젊은 세대가 새로운 공인중개사 산업 시장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듀윌은 본사 내 '동문회 사무국' 조직인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이하 에공회)'를 두고 선, 후배 간의 활동을 지원 중이다. 에공회를 통해 후배들은 선배들의 중개 노하우를, 선배들은 후배들의 감각을 공유함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에듀윌 출신 공인중개사 실무자들은 에공회를 통해 정기적인 모임, 멘토링 등을 참여하면서 서로 간의 개업, 실무지식, 매물 정보도 교류할 수 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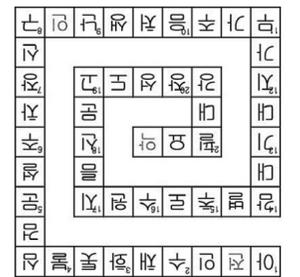
01. 자기 눈에 물 대거리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행동함.
02. 서양화에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03. 한데다가 장작 따위를 모으고 질러 놓은 불.
04.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여 의심받을 만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

05.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06. 차를 세워 두도록 마련한 곳.
07.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
08.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또는 그런 상태.
09.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10.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일.
11. 신문사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신문.
12. 이리저리 떠돌며 수양하는 승려의 옷 따위를 이르는 말.
13.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
14. 갓 태어나 암컷과 수컷으로 가려 놓은 병아리.
15. 가을 이슬을 받은 물.
16. 상수에 보낼 물을 모아 두는 곳.
17.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사게 만드는 가상의 신.
18. 조선 시대에, 백성이 역을 할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19.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높은 정도로 빨리

이루어짐. 20. 긴 장대와 같은 큰 붓이라는 뜻으로, 힘 있고 웅대한 글을 이르는 말. "오강대오" 21.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약.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나.다.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제목이 됩니다.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